

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노명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I. 서론

필자의 교직 경험을 필두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때 서울 소재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근무할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필자는 가르치게 될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다. 독자로서 읽은 것이다. 책은 그런 대로 쉽고 재미도 있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어 막상 교실에 들어가려니 갑자기 겁이 났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자가 되어 집에서 읽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던 글이,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려고 하니 도저히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글은 여전히 쉽고 재미도 있었는데 말이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부임하는 교사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력감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 “다시 배워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서의 교과 과정과 현장에서의 국어 수업의 괴리를 실감한다. 필자도

그런 사람들 속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시 필자는, 나를 키워 준 사범 대학을 원망하였고, 또 국어 교사도 알지 못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낸 당시의 문교부를 상당히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의 실제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필자가 가졌던 국어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왜 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내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나?
- ② 대학에서 배운 것은 국어학과 국문학인데, 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대한 글은 별로 없고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글이 많이 나오나?
- ③ 다른 교과와 교과서, 예를 들어 수학이나 과학의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개념, 원리, 지식)이 나오는데, 왜 국어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의 글이 나오나?
- ④ 다른 교과 교육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글의 내용을 가르치면 되는데, 왜 국어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글의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되나? 가령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수 분해'의 내용을 가르치면 되는데, 왜 국어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글 '단오'의 내용(예를 들면,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되는가?
- ⑤ 과학이나 수학 교육에서는 교과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수 분해'는 중학교의 모든 검인정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 실는 글은 교과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한때 교과서에 들어 있던 '단오'에 대한 글은 다음 개정에서는 '추석'에 대한 글로 바뀔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실는 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국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진정 무엇인가?

II. 과거 국어 수업의 모습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자기가 받은 국어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국어 수업 시수는 다른 교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실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나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과거에 우리가 국어 수업에서 많이 배운 내용들이다.

(예 1)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소설 ‘학 마을 사람들’에 대한 참고서 설명

자동차길엘 가재도 오르는 ㉠데 십 ㉡리, 내리는 데 십 리라는 영(嶺)을
 (본)가자 해도 (관)

구름을 뚫고 넘어, 또 그 밑의 골짜기를 삼십 리 더듬어 나가야 하는 마을이
 고개가 매우 높음을 말함

었다.→마을의 위치

강원도 두메의 이 마을을 관(官)에서는 뫼라고 이름지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공간적 배경] (관) (본)뫼였이라고 (기)모르다(‘르’불규칙)

자기네 곳을 학(鶴) 마을이라고 불렀다.

(예 2) 초등학교 2-1 읽기

이슬비 색시비/ 부끄럼쟁이
 소리 없이 몰래/ 내려오지요.

(예 3) 고등학교 국어 문제집

* 다음 중 「자오선」의 동인이 아닌 시인은?
 ① 이육사 ② 장만영 ③ 신석초 ④ 윤공강

위의 (예 1)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학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일반 참고서의 풀이 내용이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에 대한 참고서의 풀이는 기본형·품사·성분·어미 활용 등의 문법, 구절의 뜻풀이, 글의 구조 분석 등으로, 그 대부분 소설 자체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교과서의 설정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참고서의 풀이는 (예 2)에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실린 동시 ‘이슬비 색시비’에 대하여 참고서에서는 동시 지도는 하지 않고 낱말 풀이만 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낱말 ‘색시’ 밑에는 비슷한말로 ‘각시’를 써넣고, ‘몰래’와 ‘내려오지요’ 밑에는 반대말로 각각 ‘알게’와 ‘올라가지요’를 써넣었다. (예 3)은 고등학교 문학 참고서에 있는 국문학사에 관한 문제이다. 「자오선」은 1937년에 단 한 차례 발간된 시 모음지인데, 위의 문제는 이 시 모음지에 시를 발표한 세 명의 시인과 시를 발표하지 않은 한 명의 시인을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 수업은 대체로 아래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국어 수업은 거의 읽기 중심의 수업이다.
- 국어 수업은 교과서 글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 설명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교과서 해당되는 부분에 받아 적는다.
- 교사가 하는 설명 속에는 단어, 구절, 문단, 문단과 글의 구성, 문단의 중심 생각, 문법, 수사법, 인명 등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망라되고 있다.
- 교사의 설명 내용은 대부분 출판사에서 발행한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를 보고 국어 공부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과 중에서 국어 교과를 가장 중요한 교과로 인정하고, 수업 시수도 국어 교과에 가장 많이 할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에 가장 많은 수업 시수를 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3학년에서는 주별 7시간, 4-6학년에서는 6시간이다. 이에 비해 도덕은 1시간, 사회(이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다 포함된다)와 과학(이 속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다 포함된다)은 3시간이다. 수업 시수로만 본다면, 우리도 다른 선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어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가르치는 국어 교육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래 상당히 오랫동안 국어 수업 시간에 국어학자들이 만들어 낸 국어에 관한 문법적 지식이나 국문학자들이 만들어 낸 국문학사를 가르쳐 왔다. 이에 비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어 수업 시간에 문법이나 국문학사는 거의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 대신 학생들의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하기·듣기·읽기(문학 작품 읽기 포함)·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국어 교육의 개념과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Ⅲ. 국어 교육의 개념과 성격

1. 국어 교육의 개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공식 언어를 교육의 직접 대상으로 삼는 교과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과가 바로 이런 교과이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서독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자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를 설정하고 있고, 그 이름을 ‘영어’, ‘불어’, ‘독어’ 등 자국어 명칭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어의 명칭 이외에 ‘언어 예술(language arts), ‘의사소통 기술(communivative skills)이라는 명칭을 교과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 나라의 언어 명칭(예; ‘(한)국어’, ‘영어’, ‘불어’ 등)을 교과명의 명칭으로 부르는가 또는 그 밖의 다른 명칭(예; ‘언어 예술’,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부르는가 하는 교과 명칭의 문제는 언어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언어 교과를 그 나라의 공식 언어 명칭으로 부르는 전통적인 언어 교육관에는 언어 교육을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을 자국어에 대한 지식 즉 ‘문법’과 그 언어로 표현된 ‘문학’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 명칭을 ‘언어 예술’ 또는 ‘의사소통 기술’로 부르는 입장에서는 언어 교육의 성격을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지도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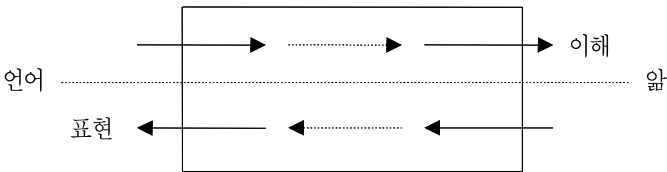
명칭과 관련되는 이 두 입장은 우리나라 국어 교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뿌리 깊은 대립적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더 나아가 국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제4차 교육 과정 시기(1945-1986년)까지는 국어 교육의 내용을 국어학 지식, 국문학 지식, 수사학 지식 등 지식 교육으로 보아 왔다. 국어 교육을 국어학과 국문학의 응용 분야로 인식하고, 국어 교육을 국어학 지식과 국문학 지식의 교육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내용 선정이 대부분 국어학과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다가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개정(1987년)과 이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개발을 통해 국어 교육은 획기적인 변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어 교육의 핵심 지도 내용을 종래의 국어학과 국문학 지식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의 지도로 새롭게 바꾸게 된 것이다. 이런 국어 교육의 관점 변화에 맞추어 초등학교에서는 종래에 사용하여왔던 「국어」라는 단일 교과서를 「말하기·듣기」 교과서, 「읽기」 교과서, 「쓰기」 교과서의 세 권으로 나누어 발간하였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도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였던 학력 고사에서 대학에서의 수학(修學)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 능력 시험으로

바꾸고, 듣기·읽기·쓰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국어 교육에 일어난 이런 변화는 언어(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는 국어 교과를 국어학과 국문학의 지식을 지도하는 교과로 이해하였으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교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 교육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교육으로 국어 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2. 국어 교육의 성격

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목표는 학생들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의 신장이다. 언어적 표현과 이해는 다른 말로는 '의미의 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표현·이해의 지적 과정

위의 그림은 언어와 앎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현 또는 이해의 지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네모는 우리의 지적 과정 즉 사고 과정을 나타내고, 점선은 사고의 질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왼쪽의 언어는 구체적 대상인 말이나 글을 나타내고, 오른쪽 앎은 우리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앎(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때로는 느낌)을 나타낸다. 오른쪽의 앎을 왼쪽의 언어로 변형시키는 지적 과정이 표현 과정이고, 왼쪽의 언어를 오른쪽의 앎으로 변형시키는 지적 과정이 이해 과정이다.

표현 과정과 이해 과정은 모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표현 과정은 자신의 개인적 앎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로 변형하여 이를 구체적인 언어(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고, 이해 과정은 다른 사람이 표현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앎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표현은 나의 앎을 너의 앎(언어)으로, 그리고 이해는 너의 앎(언어)을 나의 앎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앎을 언어로 변형하는 표현 과정과 언어를 앎으로 변형시키는 이해 과정은 모두 고등 수준의 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다. 그 이유는 언어와 앎의 형태가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언어와 앎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잘 드러내 준다.

(표 1) 언어와 앎의 차이

언어	공유적	시간적	공간적	명시적	분석적	순차적
앎	비공유적	비시간적	비공간적	비명시적	비분석적	비순차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공유’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순차’적인 외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상을 단어 수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에 비하여 앎은 개인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비언어적 모습이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격을 지닌다. 앎은 내면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있으므로 ‘비시간’적이고 ‘비공간’적이고 또 ‘비순차’적이다. 앎은 또한 ‘비분석’적이고 ‘비명시’적이다. 이런 앎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느낌’(feeling)이다.

표현 과정과 이해 과정은 모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앎과 언어가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앎을 언어로 변형하는 표현 과정과 언어를 앎으로 변형하는 이해 과정은 모두 상당히 높은 사고를 요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비시간적이고 비공간적인 속성을 시간적 및 공간적 속성으로, 비분석적이고 비명시적인 것을 분석적이고 명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비순차적인 것을 순차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표현과 이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IV. 국어 능력의 참 의미

1. 교양, 교육, 지도력, 그리고 사고력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리고 ‘지도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먼저 교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옆 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럴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이야기를 하는 상대의 교양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걸차림은 수수한데 막상 얘기를 해 보니 상당히 교양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차림새나 외모는 매우 고상하고 고급스러운데 막상 이야기를 해 보니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양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번에는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거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아 왔다. 이때 우리가 받은 학교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지식이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 된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 국사 시간에 배운 여러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도,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배운 개념들도, 그리고 수학에서 배운 공식도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거의 대부분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교육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고, 교육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우리를 교육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교육받은 내용을 대부분 잊어버렸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실체를 이루게 하는 ‘교육의 힘’ 즉 ‘교육력’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로 ‘지도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나의 가상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100인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나라의 대통령, 큰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학자, 언론인, 종교가, 법조인, 정치인 등 여러 부류에서 대표적인 사람 100명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며, 모두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100인의 지도자 속의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가 장차 이 100인 속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기도 한다. 이제 이 생각을 좀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이 100인은 각각 무슨 남다른 능력을 가졌기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힘’이나 능력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도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지도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앞에서 살펴본 교양, 교육, 그리고 지도력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소망스러운 인간 능력이다. 부모는 자기 학생이, 교사는 자기의 제자가 그런 심리적 속성을 지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리적 속성은 모두 놀랍게도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말과 글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글은 우리의 교양도 교육도 그리고 지도력도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 준다. 왜냐 하면 말이나 글에는 지식의 정도를 드러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사고의 깊이와 폭을 보여 주는 조직이 들어 있으며, 상대의 마음에 공감과 동의를 일으키는 설득적인 지도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이나 글을 듣거나 읽고 즉시 그의 교양, 교육, 그리고 지도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말과 글 즉 언어는 교양의 지표이며, 학교 교육의 목표(또는 학교 교육은 잘 받은 결과)이며, 대인 관계에서의 지도력이다.

2. 사고력과 국어 활동

말과 글은 교양과 교육과 지도력의 지표가 된다. 그 이유는 말과 글 속에 고등 수준의 사고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 수준의 사고력은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소망스러운 교육적 가치이다. 아니, 교육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고등 수준의 사고력의 신장이며, 모든 교육적 활동이 다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궁극의 목표가 되는 고등 수준의 사고력은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쉽게 실증적으로 포착되지도 않고, 또 그 신장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이다. 그래서 사고력 교육은 교육의 난제 중의 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은, 그런 고등 수준의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이다. 앞의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은 지식 생산을 위한 지적 과정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지적 과정이고, 듣거나 읽기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해 내는 지적 과정이다.

언어 활동이 높은 수준의 지적 작용이며 지식 생산의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산보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만들기’ 놀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아이가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만든다.

“하루는 호랑이가 무어 먹을 것 없을까 하고 산 속을 여기저기 찾아 다녔어요.”

어머니가 다시 잇는다.

“그런데 하루종일 산 속을 헤맸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인물의 설정, 설정된 인물에 알맞은 성격 부여, 사건의 전개,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원인과 결과, 비교, 분석, 추리, 연상, 상상 등의 고등 지적 활동을 한다. 이야기 내용이 바로 그런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서 아이가 하는 지적 활동은, 비록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어머니가 하는 사고 활동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사고 활동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사고 활동과 같은 것이다.

언어 활동은, 앞에서 살펴본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 만들기 놀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창조적 사고 활동이다. 여기서 창조되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 즉 지식과 정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하거나 쓰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소리 내기와 글 만들기이지만, 그 실제 과정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는 고등 수준의 정신 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활동의 원천이 되는 고등 수준의 사고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언어 활동의 원천이 되는 고등 수준의 사고가 바로 언어 활동의 결과도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 수준의 사고력이 있으면 언어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동시에 언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언어 활동과 사고력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하는 상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언어 활동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3. 교과 학습과 국어 활동

사람들은 국어와 수학을 도구 교과라고 부른다. 국어와 수학이 도덕이나 사회 그리고 과학과 같은 다른 교과 학습에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은 분명 사실이다. 특히 이 말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을 지도의 핵심으로 삼는 국어 교과의 경우에 더욱 분명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국어 이외의 모든 과목, 예를 들어 국사·사회·과학 그

리고 심지어는 수학조차도 모두 국어를 통해 지도되고 학습되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는 말로 교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과서의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서 제출한다. 이렇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모든 교과와 교수·학습의 도구가 된다.

언어 활동이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자의 경험을 통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수년 전 어느 사립 고등학교의 국어과 입학 시험 문제를 출제한 일이 있다. 이 국어 시험에서 필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내었다. 여기서는 읽기와 쓰기 시험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읽기 시험 문제를 살펴보자. 필자는 중학교 3학년인 입시생들이 읽어보지 못했으리라 생각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 단원’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읽기 과제를 주었다.

“나누어 준 글을 읽으시오. 그리고 ① 이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어진 답지의 앞면에 쓰시오. 그리고 ②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쓴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의 개인, 사회, 민족, 국가와 관련지어 설명하십시오.”

위의 문제는 분명 국어 시험 문제이며,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읽은 글은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글과 그런 내용이 국어 시험에 사용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어과에서 하는 읽기 평가는 실제적으로는 사회과 학습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한다. 국어과가 도구 교과가 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쓰기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의 쓰기 문제도 역시 사립 고등학교 국어과 입학 시험의 문제이다.

“아래의 네 가지 진술은 모두 개별적인 진술들이다. 이 네 개의 개별적인 진술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진 글을 쓰시오.

- ①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다 가능성이다.
- ② 책 속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정보는 그것에 얼마나 깊은 사색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식과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③ 집을 살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이고, 둘째는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이고, 셋째는 그 집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느냐이다.
- ④ 시간은 참으로 묘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 시간이 한 시간과도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열 시간과도 같다.”

위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활동인 읽기와 쓰기는 그 자체가 지식을 생산해 내는 높은 지적 과정이다. 이때 생산해 내는 지식이 어느 교과 지식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언어 활동이 모든 학교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4. 사회생활과 국어 활동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은 사회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어쩌면 사회에서의 출세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언어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대학에서의 성적은 대부분 학생들이 제출하는 레포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고, 또 국문학과·사회학과·물리학과·의학과 등 모든 전공에 다 해당된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문 계열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작성하여 낼 것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낸 레포트의 질에 따라 그들의 성적을 결정한다. 그래

서 학생들이 작성하여 내는 레포트가 학점 평점의 원초적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내는 레포트의 질은 거의 전적으로 언어 활동인 읽기와 쓰기에 의해 결정된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할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은 레포트를 쓸 내용도 아이디어도 없어 크게 고심하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도서관의 책과 논문을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해 낸다. 이런 레포트 쓰기 과정은 전적으로 읽기 과정이고 쓰기 과정이다. 아무 사전 지식도 없는 학생들이 혼자 글을 읽어 나가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한 편의 레포트인 지식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어느 사회의 어느 조직체이든 모든 조직체에는 높고 낮은 많은 직위가 위계적 체계를 이루며 조직되어 있다. 갓 입사한 제일 말단의 자리에서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등 높은 직위에 이르는 체계가 바로 위계적 조직 체계인 것이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상상해 보자. 어느 큰 회사의 각 직위에서 약 2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는 각 교과, 예를 들어 수학·물리·사회·국사 등의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 시험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때 각 과목의 시험 문제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는 문제 그대로이다. 다만 국어 시험만은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어느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본 읽기 시험과 쓰기 시험을 보게 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시험 결과를 상상해 보자. 아마 수학·물리·사회·국사 등 모든 과목에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직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과목 즉 국어 과목에서는 반대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과 시험에서는 그 교과의 특정 지식의 기억을 묻지만, 국어 시험에서는 특정 지식의 기억이 아닌 지식의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은 대학에서의 학점 그리고 회사에서의

성공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 능력이 바로 사고력이고 창의력이기 때문이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지식 그 자체를 소유하는 능력(예; 기억력)이 아니라, 지식을 다루고 생산해 내는 능력이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력보다는, 과제 해결에 관련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고 정리하고 통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력과 창의력은 사회가 지식 및 정보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더욱 크게 요청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사회가 고급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은 이런 고급 사회의 생활과 직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 우리는 국어 교육과 언어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종래의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학이나 국문학 지식의 교육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제5차 교육 과정 시기부터 국어 교과는 그 교과적 정체성을 크게 바꾸어 학생들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는 그 과정 자체가 언어를 의미로 변형하는 이해 과정이거나 또는 의미를 언어로 변형하는 표현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나 표현 과정은 모두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이해 과정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나 글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면서 이해자가 그 나름의 지식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고, 표현 과정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차적 자료로 사용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생산해 내는 과정이다.

국어 교육에서 지도의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삶의 모든 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어 능력은 고등 수준의 창조적 사고 능력이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며,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언어 능력은 특정 지식의 기억보다는 지식의 수집·분류·보존·비교·통합·창조를 필요로 하는 고등 수준의 과업에 더욱 필요한 능력이다.